

한미특수교육센터 안내&소식 2 로사 장 칼럼 친구됨 3 장애정보 특집 자폐 스펙트럼 장애 (1) 4-6 희망나누기 새로운 세상으로… 7 장애정보 특집 자폐 스펙트럼 장애 (2) 8-9 장애정보 특집 자폐 스펙트럼 장애 (3) 10-12
KASEC Voice 사랑의 하모니를 꿈꾸며 13
정보광장 Special Needs Trust란 14-15
행사보고 제 6회 무료발달검사를 마치고 16-18
한미특수교육센터 프로그램 안내 19
이달의 후원자 20



한미특수교육센터 교식

- 1. 1월 28일 토요일 오전 8시에 한국일보에서 주최하는 '거북이 마라톤'이 엘에이 그리피스 공원 산책로에서 있었습니다. 40명의 발달장애 학생들과 선생님 그리고 봉사자들이 참여했습니다. 봉사자로 참여해주신 연세대학교 남가주 총동문회와 함께 행사에 참가해주신 사랑의 및 선교교회 사랑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 2. 1월 28일 토요일 오후 6시에 엘에이 JJ Grand Hotel에서 자문위원님, 이사님 그리고 선생님들과 스텦 21분 모두가 참여하여 센터의 장단기 계획들을 의논하며 수립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3. 2월 24일 금요일 오후 4시에 '통합 농구 교실'에 1년동안 봉사자로 참여하는 학생 20명과 부모님들께서 참석하여 ABA와 APE 선생님들로부터 발달장애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돕는 방법등에 대해서 배우는 트레이닝 시간이 있었습니다.
- 4. 2월 27일에 우리 센터에서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Harmonia Music Academy와 Chamber Orchestra의 첫 모임이 있었습니다. 지도해주기로 하신 박세연 박사님과 부모님 그리고 학생이 모여 발달 장애 학생들과 비장애 학생들이 함께 음악 렛슨을 통해 교류하며 정기 공연을 통해 무대에 설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P. 13을 참고해주세요.
- 5. 3월 3일 이번 학기 '통합 농구 교실'이 시작되었습니다. 작년보다 많은 20명의 학생과 24명의 봉사자가 참여하여 14주가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 6. 3월 11일 'The Neighborhood Edu Project' 팀의 Volunteer학생들이 저희 센터에 직접 만든 예쁘고 튼튼한 책꽇이와 책을 기부해주었습니다. 수고한 학생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한미특수교육센터 는 다음과 같은 🔧을 합니다.

한미특수교육센터는 2000년 특수교육전문가들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개인과 개인 사업자, 그리고 자선기 관의 도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인 장애인을 비롯해 도움이 필요한 아동, 청소년, 성인을 위해 다양한 교육/치료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1. 특수교육 및 치료프로그램 (언어치료, 특수음악프로그램, 개별 특수교육, 놀이치료)
- 2. 아동, 청소년, 성인 및 가족 대상 심리상담 프로그램
- 3. 학교관련문제및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아스퍼거증후군 상담
- 4. 학부모를 위한 특수교육 및 Parenting세미나와 워크샵
- 5. 전문가를 위한 최신 특수교육 및 치료정보 워크샵과 심포지움 주최
- 6. 특수학교와 장애관련 프로그램 정보 및 자료 제공
- 7. 특수교육 관련 법률 Referral Service와 사회복지 정보 안내
- 8. 매스컴을 통한 장애인식 개선활동과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행사 주최
- 9. 장애 및 치료교육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무료 계간지 "아침햇살" 발간

언어소통의 어려움이나 Special Education Service 등에 관한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 센터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문의: (562) 926 -2040

친구됨

여러분은 '친구'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어릴적 동네에서 같이 고무줄을 하며 함께 뛰어 놀던 옛 친구들도 생각나고, 한국과 미국으로 떨어져 살지만나의 눈물과 웃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Best Friend 도 떠오릅니다.

초등학교 5학년때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전학간 첫날, 새 학교에 가보니 이미 아이들은 친한 친구 그룹이 정해져 있었고 그 사이에 끼어들기란 당시 숫기 없었던 저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옛친구들이 그리워졌고 슬퍼졌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저에게 다가와서는 "우리 친구할래?" 라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반갑고 고맙던지요. 그 이후 우리는 지금까지 거의 40년지기 베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옆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먼저 손내밀어 주는건 어쩌면 상대방에게 내가 생각지 못한 큰 행복을 주는 일일수도 있습니다.

요즘 한창 이야기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융합입니다. 정보통신기술과 제조업, 바이오산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이뤄지는 연결과 융합은 하나 하나의 합 이상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뭔가 복잡하고 어려운 말 같지만 이 말은 사람과 사람사이에도 적용이 되는 말인것 같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농구시간, 우리 학생들은 일주일 내내 모두 이시간을 기다립니다.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농구를 하면서 비장애학생은 단순히 장애학생을 돕는 사람이 아닌 친구로서 함께 해줄 때 이들 사이에는 서로 단순한 농구게임 파트너가 아닌 우정이라는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집니다. 친구가 되어 서로 격려해주고 말로 표현은 못해도 웃음으로 화답하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너무 이뻐서 일주일간의 피로는 싹 사라지고 보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에너지가 솟아납니다. 또 곧 시작하게 되는 음악교실과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서 서로의 다름이 함께 어우러져 더욱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 낼 것을 생각하면 준비하는 저희 스텝들의 가슴이 벌써부터 뜁니다.

동양과 서양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여자와 남자가 다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릅니다. 나와 다름은 익숙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편견을 갖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더 테레사는 "다르기때문에 더더욱 함께 해야하며 함께할 때 우리는 더욱 아름답고 가치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발달장애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에 함께 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에 부모님들은 희망을 가지고 저희는 열정을 가지고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일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을 읽는 동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그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먼저 건네보는건 어떨까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 특집 (1)

자폐증으로 처음 진단 받았을때 부모님과 가족들, 그리고 친구 친지들 역시 당황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도와주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조언과 아이들이 보이는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행동문제를 개선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봅니다.

(1) 지인이나 친척의 자녀가 처음으로 자폐를 진단 받았을 때 기억 해야하는 10가지

- 자폐를 가진 두아이의 엄마로부터

본문은 자폐 스펙트럼을 앓고 있는 두 아들의 엄마 Kimberlee Rutan McCaffetry가 작성한 글입니다. Kimberlee는 Autism Speaks Autism Network 사이트인 Children's Hospital of Philadelphia (CHOP) 의 Autism Family Partner이자 autismmommytherapist.wordpress.com 에서 두 아들에 관해 블로그를 쓰는 작가입 니다.

최근 고기능 자폐를 가진 막내 아들의 생일파티를 열었습니다. 친정과 시댁, 친구들까지 막내 아들의 한 자리 수 나이 탈출을 축하해주러 왔고, 심각한 자폐를 앓고 있는 곧 청소년이 될 형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생일파티는 잘 진행됐어요. 물론, Justin이 동생의 생일선물을 슬쩍하려고 하기도 했고, 첫째를 추운 차고에서 데리고 나와 협상도 해야했고(긴 이야기가 숨어 있답니다), 치킨너겟을 다 태워 먹을 뻔 하기도 했지만 (이건 형부가 해결해줬어요!)…. 아무튼 전쟁같던 네번의 파티는 모두 잘 끝났습니다. 네, 파티 네번 맞아요.

아들들의 생일파티를 잘 마치고 나면 탈 많았던 예전의 기억이 살아나 사색에 빠지곤 합니다. 예전에 Zach이 선물을 뜯어보는 동안 Justin을 컴퓨터 앞에 앉혀 두려고 무던히 노력했는데 결국 Zach과 Justin 모두 *meltdown을 경험하는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또 다른 파티에서는 아들을 열두번도 더 그냥 휙 지나갔다가 모든 어른들한테 "쉿!!!!" 하는 바람에 남편과 제가 아이를 데리고 아들 방으로 들어갔어야 했어요.



그렇지만, 좋은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파티때는 뜻대로 되는 것이 많이 없지만, 12년 전 Justin이 자폐 진단을 받은 후 부터 한가지 확실한 건 제가 영원히 감사할만한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돌이켜 보면 제가 정말 영원토록 감사하고픈 많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지금 이 글을 읽는 독자 분의 자녀가 혹은 가까운 지인이나 친척의 자녀가 처음으로 자폐 스펙트럼 진단을 받았다면, 잠시 시간 을 내어 이 글을 정독해주세요. 저와 제 남편의 인생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이 보여준 반응은 저희에게 엄청난 행운이었습니다 - 하지만 자폐아이의 부모인 저의 친구들 모두가 이 행운을 누리진 못했어요.

- 1) Don't judge. 아이가 보이는 *meltdown, 불면증, 음식 거부하기, 물건 줄 세우기 등의 문제를 아이의 엄마가 통제하는 모습을 보면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있을거에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판단하지말고 독자분께 조언을 구할때까지 기다렸다가 개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그 분이 누구보다 아이를 잘 알고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가장 잘 알테니까요.
- 2) Offer to help, and mean it. 아이가 처음 자폐 진단을 받고나면 부모로써 큰 스트레스를 받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작은 것 부터도움을 주세요. 아이와 엄마와 병원에 같이 가준다거나, 아이가 한명이 아닐 경우 다른 형제를 돌볼 수 있게 아이와 놀아준다거나, 아니면 아이 엄마와 같이 산책을 잠시 나가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됐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분의 곁에 있도록 노력해보세요.
- 3) Offer to help with the siblings. 처음 자폐 진단을 받고 나면 모든 것이 스트레스이고 절망 스러울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건 자폐가 아닌 형제들에게도 영향을 미치죠. 그럴 때 그 형제들하고 일대일로 시간을 보내주는 것이 형제들에게도 아이들 부모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4)** Never compare her child to your second cousin's neighbor's high school sweetheart's autistic kid. 자폐스펙트럼은 정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폐를 가진 다른 어떤 아이가 7살때 말을 잘하게 됐다고 해서 절대로 비교하지 말아주세요. 비교하는 것이 가장 끔찍한 일이라는 것…
- 5) If your friend's child has mild autism, don't tell her he/she will grow out of it. 가벼운 자폐 증상을 보이는 아이라고 해서 "아이가 좀 자라면 괜찮아질거야" 라고 위로하는 것은 절대 금지입니다. 자폐스펙트럼 장애는 평생 안고 가야할 신경 질환입니다. 고기능 자폐 아이들에게도 수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에요. 모두 존중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 6) Make them a meal. 아이 엄마가 Gluten Free식단을 고수한다고 해도 가까이 살고 있다면 한번쯤 저녁식사를 대접해주세요. 제 아이가 자폐 진단을 받고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주변인들로부터 받은 갑작 스러운 친절이 저희 가족에게 매우 큰 힘이 되었습니다.아이의 *meltdown이나 수면 문제로 하루종일 전쟁을 치르고, Early Intervention과 학교 문제와 관련된 수십장의 서류 더미에서 씨름을 할 때, 주 변사람이 베푼 작은 친절이 하루 중 유일한 한 줄기 빛이었어요.
- 7) If you know anyone with an autistic child who might be a positive support for your friend, hook her up. 지인에게 긍정적인 도움을 줄 만한 다른 사람을 안다면 꼭 소개 시켜주세요. 중요한건 " 긍정적인 도움" 입니다. 모든 것이 좌절스럽고 어려운 때에 이미 그 시기를 지나간 다른 분의 조언과 좋은 기관/센터 소개 등 많은 것을 잘 헤쳐나가도록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 8) If the family needs money and you can help, offer it. 보험정책이 바뀌면서 자폐 치료의 상당 부분이 보험처리가 가능해졌지만 보험이 제대로 적용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놓여있다면 적은 금액이나마 손을 내밀어 보세요.
- 9) Just listen. 독자분의 아이도 수면, 섭식, 행동 문제들이 있다며 맞장구 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폐를 가지지 않은 정상적인 아이들의 이런 문제들은 80년동안 지속되지 않으니까요. 실제로 본인의 아이가 자폐진단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자폐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가늠조차 힘들 것입니다. 그저 옆에서 사운드 보드처럼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 10) Get both parents out. 적어도 한달에 한 번쯤 아이의 엄마 아빠가 외식을 하거나 영화를 보며 둘만의 평온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짧은 시간이 둘 모두에게 또 결혼생활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Meltdown: Temper-tantrum (짜증) 과는 달리 아이가 다른 사람의 관심을 얻고 싶어하지 않고 본인이나 주변 사람들의 안전 또한 신경 쓰지 않는 상태입니다. 어떠한 상호작용도 하고 싶어 하지 않으며 어떤 것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보통 아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meltdown이 일어나며이 때는 어떠한 것도 아이를 진정 시킬 수 없습니다. 아이 스스로도 본인을 통제할 수 없고 meltdown 증상이 사라질때까지 천천히 기다려야합니다.

출처: "10 suggestions to help a newly-diagnosed family, from an autism mom", Autism Speaks Blog

새로운 세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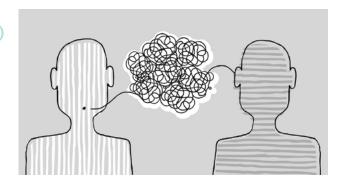
이글은 2년간 센터에서 놀이치료와 언어, 음악 치료를 받고 이제 모든 과정을 마치며 Brandon학생의 어머님꼐서 소감을 보내주셨습니다. 부모님의 꾸준한 인내와 열심으로 치료에 동참해주심, 그리고 사랑과 열정으로 가르쳐주신 선생님들의 노력으로 Brandon은 많은 발전을 보여 센터의 모든

스텝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참 긴 여정을 아니 행군을 걸어 온듯 Therapy를 끝내는 감회가 깊고 지금 마지막 Music Therapy를 끝내는 마음이 승리감과 안도감으로 벅차오릅니다. 이제 6살이 된 브랜든의 지 난 2년간의 KASEC과의 만남은 그저 Therapy에 참석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 과 말을 하지 않고 어울리는 것을 피하며 혼자 놀아도 괜찮고 재미있다는듯한 브랜든의 행동 은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왜 그럴까?' '정말 브랜든이 Autism일까?' 하는 생각을 수 없이 하게했습니다. 소장님과의 대화를 통해 Autism으로 생각된다는 느낌을 받아 Play Therapy 로 시작해 Speech Therapy와 Music Therapy를 하며 열심히 브랜든을 파악하고 브랜든의 인성을 발견하며 부족한 면들을 발전시키고 브랜든이 하고 싶어하는 것 들을 하도록 북돋아 주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3살때에 많이 듣고 좋아한 20분정도의 Stony Book CD 전체를 영 어도 모르던 아이가 그냥 외우고 말하던 그 놀라운 감각과 재능있는 브랜든이 이젠 자신을 드 러내며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많은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좋아하는 친구를 만들고 노는 모습을 보는건 그 어떤 선물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역시 전문가와 함께하길 잘했다는 생각 과 이런 중요한 일을 하는 KASEC과 함께 하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입니다. 브래든과 같은 아이들을 위해 새로운 인생을 찾아주는 이런일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끝없는 박수 를 보내드립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특집 (2) 자폐가 있는 아이들을 가진 부모님들을 위한 소통 방법



아직 말이 트지 않았거나 단어 몇 개를 (예. "엄마" "우유" 등) 갓 말하기 시작한 아이들을 위한 틴 입니다

1. Have Fun

아이와 소통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부모님과 함께 노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아이들이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 스스로 부모님과 더 소통하기를 워합니다.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관 찰한 후 그 활동을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의 배를 간지럽히는 것만으로 아이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 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아이를 간지럽히고 잠시 기다리면 아이가 부모님을 쳐다보거나 소리를 냄으로써 간지럼을 원한다고 먼저 표현 할 것입니다.

2. Be Face to Face

가끔 아이들이 어머님을 쳐다보지 않는 경우는 아이가 부모님의 표정을 놓치고 있다는 뜻 입니다. 그 럴 때는 아이와 똑바로 마주보고 아이가 무엇을 응시하고 있는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아이 가 관심을 보이는 것과 관련된 단어를 얘기해줍니다. 만약 아이가 얼굴을 마주보는 것을 꺼려하면 아이 옆에 눕는 다거나 아이가 앉아있는 의자 높이에 맟추어 쪼그리고 앉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3. Imitate What Your Child Does

아이와의 소통을 시작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의 행동이나 아이가 내는 소리를 따라 하는 것입니 다. 예를 들어, 아이가 장난감 기차를 바닥에서 굴리면 부모님도 다른 장난감 기차를 옆에서 같이 굴리 는 것입니다. 만약 아이가 "Choo Choo" 소리를 내면 그 소리를 똑같이 따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





가 부모님이 따라 하는 것을 눈치채고 그 행동을 또 하거나 같은 소리를 또 낸다면 다시 한번 흉내내세요. 흉내내기를 서로 번갈아 가며 반복 하는 것이 실제 대화하는 것과 같은 소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4. Sing Songs Together

아이들은 대게 노래를 통해 첫 단어를 배웁니다. 대부분의 동요들은 멜로디, 단어, 율동이 반복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쉽게 참여 할 수 있습니다. 노래 전 곡을 어머님이 몇 번 불러 주고 나면 아이 스스로 단어를 얘기하거나 율동 한 두 동작을 따라 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노래에 익숙해지면 부모님이 노래를 부르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멈추고 아이가 노래를 끝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습니다.

5. Use Real Objects

몇 몇 아이들은 다른 활동으로 넘어갈 때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럴 때는 실제 물건을 사용 하여 다음에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 아이 스스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예를 들어 아이의 잠옷을 보여줌으로써 잠자리에 들 시간이라는 것을 알려주거나 장난감 오리를 보여줌으로써 목욕시간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가끔 아이가 직접 물건을 손에 쥐게 하면 좀더 쉽게 한 활동에서 그 다음 활동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출처: The Hanen Centre, Helping You Help Children Communicate. "Communication-Building Tips for Parents of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Adapted from the Hanen guidebook More Than Words®)

자폐스펙트럼 장애특집(3)

우리 아이 행동 개선에 도움되는 다섯가지 팁

지난 4년간 저희 집에 수 많은 행동 치료사들이 오갔습니다.두 아들이 매주마다 20시간 가량의 강 도 높은 치료를 받았고, 제 인생에 큰 부분이 된 자폐라는 장애는 저 스스로를 굉장히 많이 성장시 켰습니다. 절대 통하지 않을 것 같던 저의 말과 행동이 아이들의 문제 행동에 도움이 되었듯이 자폐 가 있는 아이들을 양육할 때는 본인의 직관과는 다르게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아래 리스트는 아이들의 짜증을 줄이고 지시의 이해도를 높이며 아이들과 저 자신 모두의 행복감을 높여주기 위해 저희집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아이에게 효과적인 필승법이 있 지는 않습니다. 물론 빠른 시일내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안해드 리는 방법들이 자폐를 가진 아이들 뿐아니라 그 외에 많은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1) Minute Warning (타이머) 활용하기

많은 아이들이 놀이를 즐기다가 그 장소를 떠나야 한다거나 좋아하는 액티비티를 그만 두는 것을 힘들어합 니다. 5살 난 저희 아들에게도 크게 나타나는 문제중 하나로 한 때는 아이를 데리고 가까운 공원에 가는 것 조차 꺼려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할 때 아이가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바닥에 뒹굴기도 하고 복잡한 도 로로 뛰어들거나 저를 공격할때가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프고 심적으 로나 육체적으로나 많이 지쳤습니다. 그런데 Minute Warning 혹은 타이머를 사용한 후로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아이들이 하고있는 액티비티를 그만 두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5분, 2분, 1분 간격으로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고는몇 분 후면 하던 일을 멈추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는 것을 아이들 스 스로가 준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Minute warning 을 꾸준히 반복하다보면 나중에는 일상적이지 않은 일 들도 Minute Warning 을 통해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게됩니다.

저희 집에서는 휴대폰에 타이머를 설정한 후 "5분 후에는 목욕 할거야," 혹은 "2 분후에 집으로 돌아갈 거 야" 라는 식으로 아이에게 경고를 주고 타이머가 울리면 아이에게 한 말을 반드시 지킵니다. 이 방법을 2주 정도 사용하고부터 아이의 행동이 개선되었고 수 년이 지난 지금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2) 우선/그 다음 (First/Then) 문장 사용하기

아이들이 짜증을 내는 또 다른 큰 이유는 얻고 싶은것을 지금 당장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장난감, 간식, 어디론가 놀러가기 등 바로 당장 원하거나 혹은 아이들이 정말 하기 싫은 것들이 있을 때 짜증을 부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우선/그 다음 (First/Then)" 방법을 사용합니다. "우선 ______, 그 다음 _____" 이라는 문장은 아이들이 먼저 해야하는 일을 끝낸 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우선 점심을 다 먹고, 그 다음 밖에 나가서 놀거야," 혹은 "우선 정리정돈을 하고, 그 다음 공원으로 갈수 있어." 라고 아이에게 얘기해줍니다. 부모님의 필요나 아이들의 능력에 따라 말로 지시할 수 도 있고 보드에 그림을 붙이거나 글을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폐를 가진 많은 아이들이 그림을 통해 내용을 인지 하기 때문에 처음엔 그림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_____, 그 다음 ____" 이라는 문장은 간단하지만 아이들 본인이 무엇을 해야하는지 정확히 이해 하고 지시를 따르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방법은 5살 아들 Greyson에게는 효과적이지만 아직 언어능력이 부족한 3살 아들 Parker는 지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Parker의 언어가 발달 했을 때 "우선/그 다음"이라는 과정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형에게 사용하는 문장을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3) 긍정 행동 보상해주기

말로 아이들을 칭찬하는 것은 아이들이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북돋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공원에서 다른 친구에게 그네 타는 순서를 양보해주었다면 "아까 공원에서 다른 친구랑 사이 좋게 놀고 그네도 번갈아 타고 너무 잘했어!" 라고 말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행동들 (친구들과 나눠쓰기, 조용히 하기, 지시 따르기 등)에 대해 정확히 짚어줌으로써 아이들의 올바른 행동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 줍니다. 제 아들 Parker 에게 "트럭 장난감을 사이좋게 나눠 쓰는 모습이 참 예쁘네," 혹은 "블록 정리정돈을 정말 잘 했구나" 라고 칭찬해줌으로써 좋은 행동들이 나중에도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게 해줍니다 (참고로 이 방법은 남편에게도 아주 효과적이랍니다 ^^). 어린 아이들에게 이건 안돼, 저것도 안돼, 아니야, 틀렸어 와 같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 보다 좋은 행동을 짚어 주는 것이 행동 개선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어떤 아이들은 말로 해주는 칭찬을 전혀 보상으로 느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칭찬 외에 아이에게 상이 될 만한 것을 꼭 찾아야 합니다. 사탕이나 스티커와 같은 작은 것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런 상으로 아이의 버릇을 버리기 싫다는 의견들도 있지만, 저는 이것이 일을하고 월급을 받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일을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습니다 그것이 금전적일 수도 있고 감성적일 수도 있고 만져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4) 그만 했으면 하는 행동보다 꼭 했으면 하는 행동에 집중하기

아이들에게 "그만 소리질러!!!!!" 라고 소리지른 적이 몇번이나 되시나요?

우리 부모들은 "안돼"나 "그만해" 같은 단어의 사용을 줄여야합니다. 예를들어 "인도로 걸어야지" 라고 얘기 해주는 것이 "잔디 위로 걷지마"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지시 방법은 아이가 정확히 무엇을 해야하는지 알려주기 때문에 "소리지르지 마 " 보다 "조용히 해주겠니" 라는 말이, 또 "테이블에 낙서 하지마" 보다는 "색칠은 종이에만 하는거야" 라는 지시가 문제행동 개선에 훨씬 좋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말과 달라 처음에는어렵기도 하고, "안돼" 와 "그만" 이라는 단어를 꼭 사용 해야하는 상황에 놓일 때도 있지만 위의 방법을 꾸준히 실천 하다보면 최소한의 부정적 단어로 아이의 행동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5) 침착하세요!!

이 마지막 팁이 저에게도 가장 배우기 어렵고 기억하기 힘든 부분 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통제에서 벗어나 부모가 다급해질 때는 특히 더 어렵고, 지치고, 좌절되기 마련입니다. 저는 그럴 때 마다 호흡을 깊게 하고 반드시 침착한 어조로 얘기합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내 아이가 변하기를 원한다면 나도 변해야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 시킵니다. 아이들은 본인들이 원하거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가장 답답한건 아이들 스스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행동치료를 시작한 후 저희 가족이 얼마나 많이 행복해 졌는지 모릅니다. 불만은 줄고 이해가 많이 늘었으니까요. 아이들을 키운다는 것은 야생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은 성장하는 과정일 뿐 언젠가는 끝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아이 사이의 장애물은 약간의 통제와 틀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답니다.

본문: "Five Tips that Helped Improve My Child's Behavior" by Chrissy Kelly, Autism Speaks Blog

사랑의 하모니를 꿈꾸며



Harmonia Music Academy / Harmonia Chamber Orchestra 는 음악을 좋아하고, 하고 싶어 하지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발달장애 학생들과 비장애 학생들이 함께 함으로써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들과 같이 활동하며 이해하는 마음을 키워 함께 함으로써 더 멋진 음악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으로 서로 친구가 되어 성취감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Harmonia Musci Academy에서는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 어떤 악기든지 자녀가 관심을 보이는 악기를 훈련된 전문가 선생님들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파트너쉽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연습마다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한 팀이 되어서 같이 연습하고 서로에게 인내하고 도움을 주는 연습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6개월에 한번 리사이틀을 통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많은 사람들앞에서 발표함으로써 자신감을 기르고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은 서로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하게 될 것이며 이것은 나아가 한 사람의 가치와 그가치를 이 사회에서 어떻게 인정하는지에 대한 폭 넓은 시야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저 나의 탈랜트 나의 잘 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부족한 것을 채우고 그 부족함을 같이 극복하고 도와주며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고 발전하는 성취로 향하는 과정에 촛점을 두는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음악적인 재능이 없다고 하더라도 발달장애 학생들은 음악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음악 연주를 하며 자신감을 가지고 성취감도 느낄수 있습니다.

또 장애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다가가기 어려웠던 비장애 학생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이런 세상과 생각에 갖히지 않은 채 같이 도와가며 할 수 있다는 마음을 심어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과 이해가 기본으로 된 음악이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적인 음악이 될까요? 벌써 우리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런 음악이야말로 정말 진실한 음악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이며 보다 나은 세상을 꿈꾸며 그 꿈을 우리 학생들에게 심어주길 원합니다.

Harmnonia Music Academy

대상: 악기를 배우고 싶어하는 장애학생 누구나, 악기를 배우며 장애학생과 파트너가

되어 함께 연주하기 원하는 비장애학생

악기: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 플룻, 타악기

Harmonia Chamber Orchestra

대상: Harmonia Music Academy에서 배우고 있는 학생중 Orchestra활동을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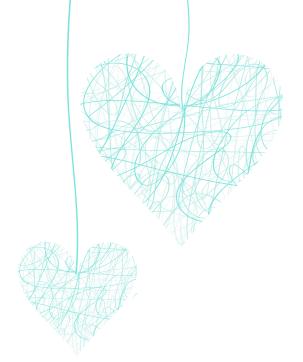
음악적 재능을 계속 키워나가기를 원하는 학생

문의: 한미특수교육센터 562-926-2040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 (Special Needs Trust)란





많은 장애부모님들의 상담을 하다보면 부모님들의 걱정은 한결같이 장애를 가진 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이런 걱정만 하시기 보다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장애자녀를 위한 재정계획을 미리 마련해 놓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 꼭 들어두셔야 하는 Special Needs Truest에 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15만불 이상의 재산을 지닌 부모가 아무런 유산상속계획없이 사망하게 된다면, 자녀들이 상속법정 (Probate)을 거쳐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자녀가 장애가 있는 경우, 자녀 스스로 상속법정을 거쳐 재산을 받을 수 없으므로 부모가 건강할 때 유산상속계획을 제대로 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자녀를 위한 리빙트러스트를 일컬어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 (Special Needs Trust)라고 명칭합니다. 자녀가 18세가 되면 법적성인이 되므로, 부모와 같이 살고 있더라도 자녀의 수입과 재산에 맞춰서 생활 보조금 (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과 정부보조 의료혜택 즉 메디칼 (Medi-Cal)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장애자녀가 본인의 이름으로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생활보조금 (SSI)과 메디칼 (Medi-Cal)등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를 만들어 장애자녀 본인의 재산 혹은 부모가 장애자녀에게 남길 재산을 트러스트가

대신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게 하면, 자녀는 사회보장제도 혜택도 누리면서, 재산도 트러스트의 명의로 지닐수 있게되는 것입니다.

소송의 보상금, 이혼 합의금 혹은 상속/증여를 자녀가 직접 받은 금액은 자녀 본인의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이때 부모, 조부모 혹은 법적 보호자가 장애자녀의 개인재산으로 트러스트를 만들면 퍼스트 파티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 (First Party Special Needs Trust)가 되는 데, 자녀가 생존시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받는 데는 무리가 없으나, 자녀의 사망시 트러스트에 남겨진 금액이 있다면 자녀가 살아생전 사용한 메디칼 (Medi-Cal) 금액만큼을 상환해야 합니다. 반대로 자녀재산이 아닌, 부모 혹은 친지의 재산으로 트러스트를 만들면 떨드 파티 스페셜니즈 트러스트 (Third Party Special Needs Trust)가 되며, 자녀의 사망후 라도 트러스트에 남겨진 금액에 대한 메디칼 상환의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런 유산상속계획을 남기지 않고 부모가 사망한후, 상속법정을 거쳐 장애자녀의 상속분에 대해 퍼스트 파티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 (First Party Special Needs Trust)를 만들면 자녀가 사망후 남은 금액을 지키기 어려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가 건강할때 미리 제대로 된 상속계획을 한다면트러스트에 남은 금액을 다른 자녀 혹은 가족들에게 남길 수 있게 됩니다.

Third Party Special Needs Trust를 만들때 대개 두가지 방법을 사용 합니다. 첫번째는 부모가 가진 리빙트러스트에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 조항 (Special Needs Trust Provision)을 넣어 부모가 사망한 후 상속집행자가 부모가 정한 조항에 따라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즉 부모 사망 후 장애자녀의 몫에 대해 따로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라는 이름으로 관리케하는 장치입니다. 둘째로 스탠드 얼론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 (Stand Alone Special Needs Trust)가 있습니다. 이는 부모가 생존 시 장애자녀의 몫을 따로 분리하여 명시하는 장치입니다. 손님을 예로 들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일부를 다른 바구니에 미리 담아 놓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앞서 말한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 조항 (Special Needs Trust Provision)은 부모의 재산을 한 바구니에 다 담아놓고 특정 재산을 한쪽으로 몰아서 분리해놓는다라고 설명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트러스트로 무슨 재산을 남기느냐 하는 것 만큼 중요한 사항이 누구의 손에 장애자녀 몫의 재산을 맡기느냐 입니다. 따라서 경험있는 상속변호사를 만나서 내 가정 내 자녀에게 어떤 트러스트가 맞을지 또 누구에게 맡길지를 충분히 살펴본 뒤 상속을 계획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213) 380-901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제 6회 OC 무료발달선별검사 행사를 마치고..



지난 3월 10일 Anaheim에 있는 성토마스 성당에서 제 6회 OC 0-5세 영유아를 위한 무료 발달 선별 검사 행사가 있었습니다. 검사는 9시에 시작하지만 스텝들은 준비를 위해 7시반에 가서 set up을 해야합니다. 곧 이 행사를 주최하는 Family Support Network 의 스페셜리스트들과 스텝들이 도착하며 검사장 set up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NY Life insurance에서 10분의 agent들이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먹을 아침을 준비해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8시가 조금 안된 시간이지만 벌써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들이 오시기 시작합니다. 선착순 50명만 검사를 받을 수 있기에 서둘러 오시는 분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센터의 숙달된 Volunteer 들은 일찍오신 부모님들과 아이들에게 아침을 서브하기 시작합니다. 대기실에 마련된 책상에서 부모님들이 Form을 작성 하시기 시작합니다. 통역을 맡아주시는 NY Life agent 들이 영어로 된 Form을 작성하시는 것을 도와드리고 Child ID도 만들어주시고 아이들이 기다리며 지루해 할까봐 준비해 둔 장난감, 책, Coloring 등을 함께 놀아주시고 안아주시기도 합니다. 여기 저기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뒤를

땀을 흘리시며 열심히 뛰어 다니며 안아주고 함께 놀아주시는 봉사자들을 보면 진심어린 사랑이 느껴집니다.

드디어 9시가 되자 미리 오셔서 form들을 작성하신 분들의 순서대로 검사 장소에 마련되 시각, 청각, 치과, 언어발달, 정서발달, 소근육, 대근육 발달, 종합발달 이렇게 8가지 Station을 돌며 검사를 받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Cal State Fullerton의 언어의사소통학과 한국인 교수님인 승혜경 교수님과 김민정 교수님께서 함께 오셔서 영어로 제대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한국 아이들을 위해 한국어로 선별검사를 진행해주셔서 얼마나 다행인지요.

검사를 모두 마치면 검사 결과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Refer를 해드리고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우리 센터의 Check -Out Table에서는 UCI 병원과 Center For Autism Clinic 에 계시는 발달전문 소아과 선생님이신 박현선 선생님이 한국어로 더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고 모든 순서를 마치게 됩니다. 전문가들을 만나 상담을 하려면 최소한 9개월을 기다려야 하는데 무료발달선별검사 행사에 오시면 한자리에서 모든 전문가들을 만나고 특히 한국어로 궁금한것 걱정되는것들을 물어보실 수 있으니 부모님들은 모두 만족하고 감사해하십니다. 4살이 다 되도록 간단한 단어만 하는 손자가 걱정이 되어일하는 부모님 대신 데리고 오신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영어로 검사 받기 힘든데 통역도 해주시고 한국 선생님께 상담도 받아 손자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가서 교육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알게 되어 정말 감사하다고 손을 잡고 몇번이고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하시고 가십니다.

이 행사는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행사입니다. 여러 봉사자들의 도움과 한인 전문가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매 행사마다 참석하신 분들이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 피곤은 어느새 다 사라지고 오직 기쁨과 보람만 남게 됩니다. 스텝들에게는 그 보람과 기쁨이 또다시 다음 행사를 준비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사를 함께 하며..

오래전부터 영어로 소통이 힘든 한국인 가정을 위해 5세 이전 아동들의 발달을 체크해볼 수 있는 행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졌었는데, 저의 소망을 이뤄주신 KASEC 과 후원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해로 OC에서 6회째인 이 행사를 통해 지금까지 약 300여명의 아이들이 발달검사를 받았고,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어디서 어떻게 도움을 요청 해야하는지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쁩니다. 저는 그동안 자폐를 가진 아이들 뿐 아니라 행동 문제와 발달 지연을 비롯해 심각한 조산 혹은 그 외 복합적 질병으로 인한 인지능력, 운동능력, 사회 정서발달에 문제가 있는 여러 영유아들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에게 발달 지연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언제나 합겹고 괴롭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





은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건지 모르고 치료 시기를 놓치고 나서야 전문적 진단의 필요함을 느끼고, 그제서야 아이에게 아무 문제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를 찾아옵니다. 대게 부모님들은 확실히 눈에 보이는 발달지연이 아닌 이상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 아이의 엄마로써, 또 소아 발달 전문의로써, 도움이 필요한 모든 아이들을 내 아이의 일인것 처럼 돕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은 소아 전문의를 직접 찾아가는 것 보다 우선 어린이 발달 검사와 같은 행사에 아이들을 데려가서 좀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선별검사를 받을아 보는 것도 좋을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검사때 저에게 상담을 요청한 한 살 반 정도의 아이를 가진 부부가 알고보니 작년 행사때 왔던 7개월 된 아기인데 너무 귀여워서 함께 사진을 찍어서 기억을 하고 있던 그 부부였습니다. 작년 검사에서 처음 그 아이를 봤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1년이 지나 만났을 때는 아이가 몇가지 분야에서 발달 지연을 보였고 적절한 치료를 위한 referral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작년 행사 이후 부모님께서 아이에게 문제 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다시 이번 발달 검사 행사를 찾아온 것과, 이를 통해 치료와 관련된 유익한 정보들을 얻어갈 수 있음에 안심이 됐습니다. 많은 한국인 가정들이 아이의 발달 지연이 더 심각해 지기 전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이 행사의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인 목표라고 믿기에 해마다 이 행사를 실시하고 있는 한미특수교육센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Hyun S. Park M.D., Developmental and Behavioral Pediatrics
UCI MC/The Center for Autism and Neurodevelopmental Disorder/CHOC

한미특수교육센터 프로그램 안내

특수음악 프로그램

노래와 악기들의 음악적 요소를 이용해 행동과 정서상 문제 해결을 돕고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폐증, ADHD, 유치원 부적응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놀이치료

정서가 불안하거나 사회성이 부족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놀이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발산시킴으로써 정서적, 인지적 발달을 촉진하고 아동의 잠재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심리치료 방법입니다.

KASEC 통합 농구교실

장애를 가진 학생들과 비장애 학생들이 함께 어울려 APE 교사와 농구 코치의 지도하에 다양한 체육활동을 하며, 농구의 기본기술을 배우고, 사회성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ADHD Consulting

현재 공립학교에서 재직중인 Resource Specialist로 부터 ADHD 와 학습장에 가능성 여부와 진단과학교문제에 대한 문의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Parenting Seminar/ Workshop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부모교육세미나와 워크샵을 제공합니다. 심리적으로 건강한 자녀 키우 기와 부모님의 스트레스 조절방법, 효과적인 대화방법 등을 배우게 됩니다.

ASQ Developmental Screening

Wang Globalnet Fund의 지원으로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무료발달선별검사를 해드립니다. 의사소통, 소근육, 대근육발달, 문제해결능력, 사회성 발달에 대해 체크해볼 수 있습니다.

Children's Health Screening Fair (LA & OC)

Orange County와 Wismettac Foundation의 기금 지원으로OC와 LA에서 발달선별검사및 건강 박람회를 엽니다. 무료로 8개의 발달 영역에 대한 선별검사와 자폐증 및 발달장애와 관련된 상담 및 학교서비스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폐증/발달장애진단

발달선별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 센터 발달소아과 전문의에 의한 자폐증 또는 발달장애 진단을 받을수 있습니다. 연령에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으며 자폐증 부모를 위한 Consulting도 함께 제공합니다.



후원해주신 분들

(2017년 1월1일부터 3월 10일까지)

7HO.

김미원, 김신규, 김정희,김효정, 나성애, 루디아 리, 박미경, 박수정, 박명숙, 박영숙, 박지경, 윤현숙, 이성희, 이은영, 육재민, 이은경,이주희, 윤현경,장 준, 정옥점, 정봉실, 조동연, 한동휘Sarah Woo, Lisa Yi, Jill, Bella Shim, Choi Family, Jennifer Jung Kim, Ji Won Oh, Kimberly Park, Nancy Lee, Cecilia Paik, Stella Gee, David & Esther Lee

区到 坚 吐剂

뉴저지초대교회, 미주서부교회, 하심교회, New Covenant So. Baptist Church, GP Enterprise Corp., Nongshim Holdings USA, New York Life, St. Francis Fraternity, Dough City, Kevin Na Foundation

* 광고후원자 명단은 따로 적지 않고 광고로 대신합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우리 학생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힘**이 됩니다. 사랑에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社口等个正安创时 争乱处出

1. 온라인 후원방법

저희 Web site **www.kasecca.org**의 Donate button을 누르시면 Credit Card나 Debit Card로 간편하게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2. 저희 계좌로 직접 후원금을 입금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자님의 은행에 저희 은행 및 계좌 information을 주시면 됩니다.

Bank Name: **OPEN BANK** Routing Number: 122043958

Account Number: 04200218 Account Name: Korean American Special Education Center

센터이름: Korean American Special Education Center

주소: 13353 Alondra Blvd. #110, Santa Fe Springs, CA 90670

3. 우편으로 Check를 보내주실 분들은 Payable to KASEC 로 쓰셔서 위의 주소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4. Smile.amazon.com

Amazon으로 쇼핑 하실 때, smile.amazon.com으로 들어가셔서 "pick your own charitable organization"에 "Korean American Special Education Center"를 선택하시면 총 구매 금액의 일부가 자동으로 KASEC으로 기부됩니다.

* 저희 센터는 비영리기관으로서 여러분이 내신 후원금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Tax ID 20-1635852)



ERRITOS CENTER MIDEL MILE MEDICAL CALLED

Pioneer 와 Artesia Blvd

각종보험 / 메디케어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성심껏 모시겠습니다

진료 괴목

- · 일반내과(고혈압, 당뇨병)
- · 소아과(예방주사, 신체검사) · 부인과(PAP Smear, 유방암 검사)
- · 외과, 피부 비뇨기과
- · 종합 건강 진단과 진찰(Physicals)
- · 직장사고, 교통사고
- 응급치료(Urgent Care)
- 알러지 검사 및 치료
- · 각종 피검사
- · X-Ray 검사, 초음파, 심전도 • 위, 장 내시경 및 조직검사
- •레이져 치료
- · 골다공증



김신근 가정 주치의 John S. Kim, M.D.

미국 보드 전문의

11911 Artesia Blvd. Suite #101 Cerritos, CA 90703







TranStar Transportation, INC.

Jay Shin, President

Truck Load, Less Than Truck Load and Transportation Service

- Truck Load to Northern California, UT, CO, AZ, NV, TX, etc.
- LTL(Less Truck Load) Service in California
- 53 ft Trailer & 26 ft Bobtail Trucks available

Tel: (310) 534-0113 Mobile: (310) 800-8510 Fax: (310) 534-0116 E-mail: Transtar.inc@gmail.com

24328 S. Vermont Ave. suite #355 Harbor City, CA 90710



Gene (Seungjin) Seok, MBA

Financial Services Professional (CA Lic. #0H89595)

Registered Representative offering securities through NYLIFE Securities LLC (member FINRA/SIPC), A Licensed Insurance Agency

675 Placentia Ave, Suite 250, Brea, CA 92821

Bus. 714.255.7145 Cel. 949.232.0872 Fax. 714.255.5199

sseok@ft.newyorklife.com



$\mathbb{IS} \, ext{Auto Tech Inc.}$

Auto Body & Repair

24 Hour 714.878.5945 Toll Free 888.636.5067

이요섭 Joseph Lee President

www.jsirvineautobody.com jsautotech@hotmail.com

FULLERTON BRANCH 158 N. Gilbert St. Fullerton, CA 92833 T. 714.870.0600 F. 714.870.0670

H.Q OFFICE 10571 Acacia Ave. Garden Grove, CA 92840 T. 714.636.5067 F. 714.636.5068

■ IRVINE BRANCH 260 E. Dyer Rd. Santa Ana, CA 92707 T. 714.557.0500 F. 714.557.0503

> "찿아가는 서비스" 24시간 무료 토잉

Since 1992

STEVEN C. KIM & ASSOCIATES

A PROFESSIONAL LAW CORPORATION



The Wilshire Colonnade 3701 Wilshire Blvd., Suite 1040 Los Angeles, CA 90010 (213) 365-7007 Fax (213) 365-7001 stevenckim@sbcglobal.net



Kyu Bum Han Lic. # 0B55520

GLOPAX FINANCIAL & INSURANCE SERVICES

Insurance & Financial Planning

7740 Painter Ave., Suite 206 Whittier, CA 90602 Phone: (562) 945-2670 Fax: (562) 945-2680 info@iglopax.com



유 재 욱 ^{팀장} HP TEAM 76 C: 213-700-0173

E: jaeyoo929@gmail.com www.coway-usa.com



COWAY USA INC. 4221 Wilshire Blvd. #308 Los Angeles, CA 90010





CEO David Chul S. Yang 대표 양철승

1961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7

T323 730.5050 F 323.731.1313 C 323.383.3723 david@laservisionworld.com

Sean S. Lee, LUTCF

Financial Services Professional CA Insurance License #OH62773



Fraser Financial Group

3530 Wilshire Blvd. Suite 105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252-6209 Cell (562) 728-3808 Fax (213) 252-6299 seanlee@financialguid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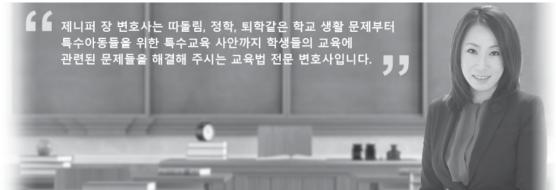
LAW OFFICE OF JENNIFER S. CHANG

Jennifer S. Chang, ESQ

5900 WILSHIRE BOULEVARD Suite 2250 Los angeles. Ca 90036

JENNIFER@JENCHANGLAW.COM TEL (323)931-5270 FAX (213) 896-7050

WWW.EDUCATIONRIGHTSATTORNEY.COM WWW.JENCHANGLAW.COM





The Original Korean Brand

Taste of Kovea







к취 한미특수교육센터 운영진 및 Staff 소개

Executive Director

Rosa Chang (M. Ed. in Special Education, Rutgers,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Board Members

이사장 양한나

실행이사 한규삼 (뉴저지 초대교회 담임목사), 이경미 (AXA Financial Advisor), Bella Shim,

조제원 (신경과학연구단장,KIST), Christina Kwon (Realtor, Coldwell Banker), John Kim (세리토스 메디컬 센터 병원장), 강승헌(Wang Globalnet 대표)

Advisory Board Members

이시연 박사 (Cal State LA 사회복지학과 교수)

Susan Chung 박사 (Kaiser 병원 소아정신과 전문의)

승혜경 박사 (Cal State Fullerton, 의사소통장애학과 교수)

정우식 박사 (Cal State Fullerton, 특수교육학과 교수)

박랑규 박사 (아이코리아 아동발달교육연구원 원장)

박현선 박사 (Children's Hospital of Orange County, 소아 발달전문의)

박규남 (Special Education Specialist, Lynwood School District)

Jennifer Chang (특수교육법 변호사)

Administrative Staff

Planning & Public Relations Manager

Sam Yoon (B.A. in Church Music, Yonsei University)

Administration Officer

Seon Young Hong (Seoul Womens College of Nursing)

clinical Staff

Therapy

Esther Lee (CCC-SLP, M.A. in Speech-Language Pathology, Northwestern University)

Heesoon Jeon (M.A. in Music Therap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Christina Cho (M.A. in Occupational Therapy, CSUDH)

Adapted Physical Education Program

Kevin Ma (M.A. in Education, CSUDH, APE Credential in CSUN, 현 LAUSD APE Specialist)

Early Intervention/Social Skill Program

James Lee (M.A in Special Education, University of Oregon)

Developmental Disorder Evaluation

Hyun S. Park (M.D. in Developmental Pediatrics, 현 UCI Asst. Clinical Professor of Pediatrics)

Special Education Consultation & ADHD Consultation

Hwa Byuck Lee (M.A. in Special Education, CSUF, 현재 Los Cerritos School RSP Teacher)

Harmonia Music Academy/Harmonia Chamber Orchestra

Seyon Park (D.M.A in Choral Music and Instrumental Conducting, USC)